

# 문학과 치유

담당교수 : 문선영



푼크툼  
(Punctum)  
찾기

◆ ‘스투디움(Studium)’

- ✓ 보편적 감동
- ✓ 윤리와 교양에 근거

◆ ‘푼크툼(Punctum)’

- ✓ 개별적으로 꽃히는 단어, 문장, 장면
- ✓ 개인적으로 각별한 호소력을 갖는 요소
- ✓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지만, 나를 찌르고 물들여서 마음속에 남는 것들

보호사로서의 정인의 임무는 '끼어들기'라고 했다. 물론 보호사 교육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명시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정인은 재활, 지지, 관찰, 보호 같은 항목들에 '방해'도 추가하고 싶다고 했다. 생존자가 우울이라는 깊은 우물에 빠져 혼자 가라앉지 않도록 끼어드는 방해꾼이 되는 것이 제 목표라며,

"어때요? 제가 조금은 방해가 되고 있나요?"

## 미하 -> 정인

- 보호사, 감시자, 옵션 시술을 선택한 사람, 냉소적인 시선

：“나이트 사람 특유의 오지랖일까. 아니면 불행한 감정을 지워 낸 이후의 가벼움일까.”

：“출석체크? 생존 체크가 더 맞겠지.”

“우리라는 단어조차 전략적인 선택으로 들려왔지만,”

- 속도 없는 사람, 나이브한 성격, 자살에 대한 궁금증, 70점 정도의 보호사

“그런 종류의 그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좋은 뜻 으로든 나쁜 뜻 으로든 해맑았다. 이게 옵션 시술의 위력인 걸까.”

- 대신 웃어주는 사람,

“정인의 새로운 포지션은 미하 대신 웃어 주는 사람이었다.”

-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방해꾼, 안아주고 싶은 사람

- 보고 싶은 사람, 95점의 보호사

“저도 모르게 그분이 벌써 보고 싶다고 해 버렸다.”

## 정인의 위로

- ✓ "미하씨는 먹기만 잘하면 돼요."
- ✓ "정인은 몇 분간 미하를 다독였다. 울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다."
- ✓ "미하가 아무리 느릿느릿 비효율적으로 움직여도 정인은 사소한 참견 한마디 보태지 않았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지켜보듯 그저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다."
- ✓ "집안일은 꼬리를 물고 나온다. 끝이 없다. 그것을 차례대로 정인과 해치운다."
- ✓ "집안일에 매달려 하루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나면 손발에 깊이 박혀 있던 냉기가 녹았다."

## 태혁의 위로

- ✓ "태혁은 미하의 걱정거리를 종이접기 하듯 절반, 아니 그 반의반 정도로 접어 내는 능력이 있는사람이었다."
- ✓ "태혁은 미하가 무슨 말을 해도 편을 들어줄 기세였다. 시금치를 벌여 냈던 사호의 편을 들어주었을 때처럼."